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23.9.14(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정책팀-

-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견기업은 자금·인력 등 한계로 ESG 경영 도입·실천이 여의치 않은 상황
 - ‘ ’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25.5%(제조 31.1%)가 ESG 경영을 도입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예산 및 인력 부족’(30.8%)으로 나타났으며, ‘ESG 도입·실천 효과 불확실’(20.6%), ‘다양·복잡한 ESG 평가기준’(15.7%)을 꼽은 응답이 뒤를 이음
 - * 애로사항 : ①예산 및 인력 부족(30.8%), ②ESG 도입·실천 효과 불확실(20.6%), ③다양하고 복잡한 ESG 평가기준(15.7%), ④인센티브 부족(14.2%), ⑤경영진의 관심·의지 부족(13.3%) 順
- ESG 공시 의무화 추진은 시기상조이며, 의무화를 통한 규제보다 ESG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ESG 경영 도입·실천을 촉진하는 방향의 접근 필요

<중견기업 현장 목소리>

- A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컨설팅, 탄소배출량 측정 데이터 수집 기반 구축 및 막대한 자원 소요
- B사는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당장 국내·외 사정이 어려워 ESG 자체에 대한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에 소재한 당사 특성상 관련 인력 확보도 마땅치 않음. 기업의 ESG 공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관련 시설 투자 지원 및 ESG 담당 인력 고용 지원 요청
- C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해 관련 컨설팅을 활용하였으나, 회당 1억을 초과하는 비용 등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요청
- D사는 불확실성이 큰 ESG 경영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도록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확대 등 유인책 마련 요청